

구약 희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김 대영, 심상달¹

<논문초록>

본 논문은 구약 희년 토지 기반의 경제의 장점을 분석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 특히 자본시장에 유추 적용하고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경제학적으로 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기축생산요소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와 자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희년 토지제도를 자본주의의 자본시장에 해당하는 토지시장, 담보와 부채제도를 금융시장, 노동 및 노예 제도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적용할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구약 희년 경제가 생산수단의 사유가 보장되면서도 생산수단의 사유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산수단의 사유가 융합된 내부시장 경제로 보완되어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 경제를 이루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희년 경제구조를 오늘날의 자본주의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에 도입하여 특수한 조합형 주식회사인 SHC(Servant Holding Company)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일어나는 열린 내부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가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참여자들이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소유하는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희년, 희년 토지제도, 희년 부채제도, 희년 노예 제도, SHC(Servant Holding Company), 융합경제, 경제민주화, 자본시장 민주화, 지속가능, 동반성장

I. 서언

그 동안 성서 구약의 희년 토지제도와 희년 토지 기반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서의 경제에 관련된 법을 경제구조상에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약의 희년 경제 개념을 경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핵심 개념과 장점을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 특히 자본시장에 적용하여 희년 경제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모든 경제참여자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하는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해 현재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 장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희년 토지기반 경제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과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요소와 생산수단의 소유권의 차이와 유사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III. 장에서 성서의 희년 경제구조와 그 장점을 설명하고 IV. 장에서는 희년 경제구조의 장점이 오늘날 적용되는 경제구조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자본에게는 안전하고 성장성 있는 자본투자처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동반성장구조를 제공하고, 투자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게는 독자성을 유지하며 조합형지주회사를 추가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시장형 생태계기업 구조를 제공하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 개념대신에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¹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SHCLab 대표); 심상달(융합경제연구소 SHCLab 소장)

경제적 소출의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추가적으로 소유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동반성장구조를 제공하는, SHC²기반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제시했다.

II. 희년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 적용

1. 융합적 방법론

구약 희년 경제의 장점을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희년 경제 시대의 경제체제였던 토지기반 경제 상황에서의 희년 경제구조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 장점의 핵심적인 개념을 오늘날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해야 한다. 이때 당시의 희년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오늘날의 발전된 경제학을 응용하여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융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기반 경제 시대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희년 경제구조의 핵심은 희년 토지기반 경제이며 생산수단을 거래하는 토지 시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도 계속되어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소유권 거래시장인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유사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희년 경제 제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밝히고 그 해결된 방법을 자본주의의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희년 토지제도 첫째 유사성을 기반으로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융합된 이론적인 틀로 양쪽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2절. <생산수단 소유권의 유사성>에서 기축생산요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수단 소유권의 유사성과 생산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둘째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3절. <생산수단 소유권의 문제점>과 4절. <희년 경제구조의 자본주의 적용점>에서 생산수단 소유권의 발전역사와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권의 문제점과 희년 경제구조를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적용하는 경제구조적 분석에 대해 다루었다. 셋째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권의 문제를 희년 토지기반 경제에서 해결한 핵심적인 장점을 III장. <희년 토지기반 경제 제도 분석과 장점>에서 분석하였다. 넷째 희년 경제의 핵심적인 장점을 자본주의에 적용한 해법을 IV장. <SHC기반 융합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에서 제시하였다.

2. 생산수단 소유권의 유사성

1). 지대와 토지가치

² SHC(Servant Holding Company) (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2014)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으로 소유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은 첫째 단기적으로 생산요소간의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지대 이익이 있다. 그리고 둘째 또 하나의 이익은 토지의 자산가치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다. 토지 자산의 가격은 매년 지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무한대기간 동안의 지대를 합하되 그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무한대 기간동의 지대의 현재가치를 합한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자본화된 지대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토지는 토지 노동 자본의 3대 생산요소이면서 토지는 고대로부터 그 거래의 형태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을 문서화해서 문서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그런데 고대는 생산수단의 기반이 토지였던 시대이므로 토지를 소유하면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모든 토지의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한 현재가치가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을 윌리엄 페티³가 밝히기 이전부터 현재 한국의 시장 상황에서 권리금이 형성되듯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토지가격이 자본화된 지대 형태로 거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문서가 국가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거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 갈 때 경제의 생산수단의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생산요소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전체 경제의 주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규모의 경제적 지대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2). 지대 개념의 확대 적용

리카르도의 한계지 개념은 신고전학파의 한계와 차이는 있지만 이후 한계 혁명을 일으키는 원초적 개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카르도의 한계지 상황의 차액 지대를 모든 생산요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한 개념이 신고전학과 경제학자인 마샬에 의해 정립된, 근대적 의미의 지대, 경제적 지대의 개념이다. 그는 경제적 지대를 생산요소의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공급이 부족하거나 제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즉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개념을 일반적인 생산요소로 적용한 것이 마샬의 경제적 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계학파는 한계이론을 통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분배되는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대의 권력적인 요소를 배제시켰다.

한편 생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라는 개념의 경제의 권력적인 요소를 가진 절대지대 개념을 제시했던 마르크스는 자본에 있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실물자본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제 자본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자본에 특별한 권력적인 요소를 넣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장의 가격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일어나기 보다는 특히 회사내의 분배에서는 경제권력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생산요소 차원에서의 경제권력의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토지를 넘어 자본 생산 요소에까지 절대 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³ 경제학자 중에서 윌리엄 페티는 토지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경제학자 중에 처음 만들어내었다. “2천4백만 에이커 토지의 가치는 두 가지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에이커 당 가치 6파운드 1실링 8펜스를 토지면적 2천4백 에이커에 곱해서 1억 4천 4백만 파운드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이 토지의 연간 지대 8백만 파운드를 구매연수 18년(연간 수익률 5.556%임을 뜻한다)을 곱해서 1억 4천 4백 파운드를 얻는다. 토지의 연간 수익률을 5.556%라고 전제하면 8백만 파운드의 연간 수익의 자본가치는 1억 4천 4백만 파운드(8백만 파운드/0.0556=1억 4천 4백만 파운드)가 된다.”

경제권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의 구조를 취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분열적인 방법 대신에 참여하는 자본과 노동 등의 소유권을 융합하고 자본화하여 모두가 추가적인 자본을 소유하는 방법을 통해 대립 대신에 조화로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을 생산요소 단위까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요소를 경제적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기축생산요소와 생산수단의 소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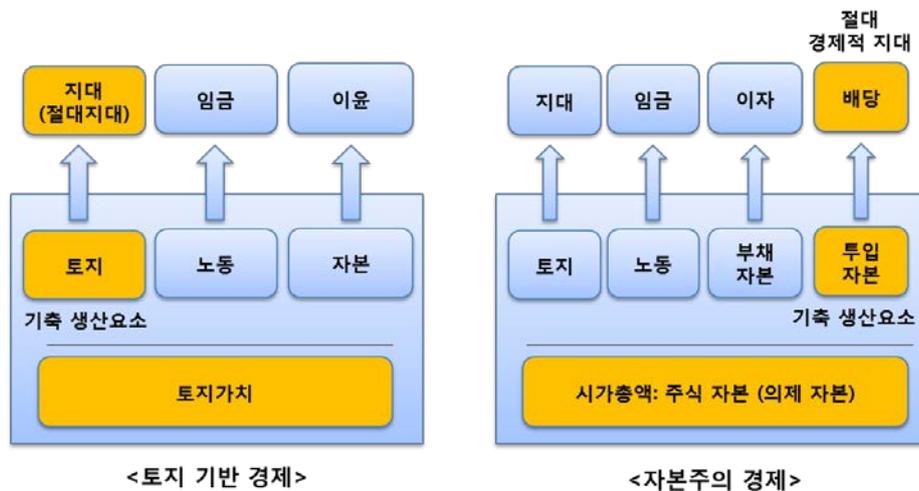


Figure 1 토지기반의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의 기축생산요소

<Figure 1 토지기반의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의 기축생산요소>에서와같이 생산요소의 소유권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인 생산요소를 기축생산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라고 정의한다. 토지 기반 경제에서 토지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의 생산력을 합쳐서 소출을 내는 전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생산 요소 이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노동, 자본이 합쳐서 생산을 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자본이라는 생산 수단에 투입되어 생산물을 내지만 토지의 소유권 대신에 대신에 자본으로 세워진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의 소유권을 정의하는 문서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되는 시대이다. 즉 생산 전체의 소출을 내는 생산수단의 법적 단위가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 전체의 소출을 내는 법적 단위 곧 기업 혹은 생산 수단을 정의하는 소유권이 있는 생산 요소가 토지 대신에 자본이 되는 시대이다. 이것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토지기반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차이이다. 기업의 소유권을 자본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하고, 특수한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자본도 토지와 같이 생산 요소로서 생산에 투입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특수한 자본의 소유권이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 되는 두 가지의 측면의 역할 하게 된다.

3. 생산수단 소유권의 문제점

1).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권의 발전역사

고대와 중세에는 사적 소유권이 발달되지 않았다. 토지는 총유(總有)상태에서 법적 소유는 국가, 왕, 영주에게 있었지만 실제 토지의 점유는 농민들이나 농노들이 했다. 이후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적 소유권이 발전했다. 영국은 로크의 개인의 사적 소유권(property)이 중심을 이루는 근대 자연법 사상의 영향으로 생산수단의 완전사유화가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농업위주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특수한 생산수단 개념이 등장했다. 중농주의자 헨리조지의 원조 케네는 단일세론을 주장하며, 조세를 지불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이며, 토지는 단순히 그 개별소유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교회,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개별소유자가 수입을 얻는 것처럼 국가는 조세를, 교회는 1/10세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도 생산소유권은 공동사회에 의한 구속을 받는 소유권 개념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절대적 소유권의 세계적인 흐름이 독일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유소유권의 무제한성이 가지는 위험성을 의식하면서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자 했다. 특별히 기에르케는 게르만 사회의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로마법적인 개인소유권 외에 단체소유권을 주장하며, 게르만사회의 촌락공동체적 토지소유관계인 총유(總有)등을 말하였다. (甲斐道太郎등저 & 강금실역, 1984) 이러한 제도에 비해 성경의 토지제도는 역사적으로 고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경제법이지만 주기적인 사용권 유통 기간 안의 사용권 유통, 토지 영구사용권의 배타적 사유권 보장, 시장적인 수익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배타적 사유권이 보장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장 경제구조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권의 반작용으로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들 대신 노동자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에 대한 실현을 레닌이 국가 사회주의로 실현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던 레닌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닐스 칼레비에의 생산수단의 소유권 분할 개념이 도입하여 사민주의 경제체제 구축의 기초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사민주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권 중에 수익권의 분할은 사민주의 이후에 동시대에 등장한 케인즈 경제학에 의한 수정자본주의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세금을 거두어 분배하는 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

2).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권 거래의 문제점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모두 생산수단의 공동체 성이 없는 배타적인 소유권만을 적용하면 사유화의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 첫째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배타적인 자유경쟁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둬제곱의 법칙⁴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과 토지기반 경제에서는 소수만 토지를 가진 상태가 되고 자본주의 경제 상태에서는 소수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이룬다. 둘째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도가 증가하면서 중복투자에 의한 지속가능성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의 독자성이 커지면서 중복투자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며 생존 불가능한 경제주체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소유권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이 되면 개별 경제주체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서로 연결성이 끊어지고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단점은 중복투자가 일어나며 개별 주체의

⁴ 거둬제곱의 법칙은 복잡계 경제학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자유경쟁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뛰어나고 나머지는 정규분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롱테일이라는 긴 꼬리를 그리며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세번째, 오늘날의 민주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지방자치제로 말미암아 빛어지는 중복투자이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지방자치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운영한다면 중복투자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지방 인해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 선심성 투자는 지양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발견되듯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보다 더 심각한 지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만연되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많은 채무 불이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 희년 경제구조의 자본주의 적용 방법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규정,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등에 기록된 안식년 규정을 분석해보면 희년 경제는 첫째 7년 주기의 안식년과 7번의 안식년인 49년 후에 1년의 희년을 둔 50년의 주기를 가진 경제구조이며, 둘째 토지에 대한 처분권 제한과 토지, 노동, 부채에 관한 무한 소유권 대신에 유한 소유권 규정 등의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희년 경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같이 발전된 구조는 아니지만 토지시장이 있어 오늘날의 자본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은과 같은 화폐 등이 있었고 담보에 의한 부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원시적인 금융시장이 있었으며 상품시장, 노동시장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희년 경제제도의 함의를 현대 자본주의에 적용하기 위해 유한기간토지사용권 시장인 희년 토지 시장과 유한기간부채인 희년 부채제도를 오늘날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용하고 유한시한 인적자산 시장인 희년 노예제도와 노동력에 관련된 규정을 노동 시장에 적용하여 희년 경제가 지닌 토지기반 경제에서의 장점을 오늘날의 경제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희년 경제제도는 이후에 자세히 살펴겠지만 오늘날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며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생겨나는 유한기간 사용권 시장인 토지시장을 기반으로 내부자본시장과 내부시장을 활성화하는 투자기반 경제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때 투자는 경제와 사업에 대한 장기 기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이자율보다 높은 예상한계효율⁵을 제공하는 안전한 투자처가 지속 가능하게 충분히 있다면 정부 지출 대신 민간의 투자(I)에 의해 필요한 총유�효수요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희년 토지제도는 이후에 자세히 살펴겠지만 오늘날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며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생겨나는 유한기간 사용권 시장인 토지시장을 기반으로 내부자본시장과 내부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III. 희년 토지기반 경제 제도 분석과 장점

성서 구약의 희년 경제가 주변 국가의 경제법들보다 탁월한 점은 모든 회복적 정의를 위한 구조가 미리 약속되었다는 것이다. (이종근, 2008) 그리고 그러한 미리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설계되었다는 관점에서는 오늘날의 경제법들보다 탁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토지정의, 부채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려하는 부분은 신용과 약속의 파괴와 경제와 국가적 신뢰가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부채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어놓지 않으면

⁵ 케인즈는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 투자의 한계효율 즉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내부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때 투자가 일어난다고 했다.

쌓여가는 부채가 한계까지 차올라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개혁법인 우르-이남기 법을 바탕으로 왕의 결정에 의해 회복적인 회복적인 사회정치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희년 경제 구조는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기에 따라 매년, 7년, 50년등의 주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지속 가능한 자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종근, 2008) 이러한 신뢰와 약속, 제도를 기초로 설계된 희년 경제제도를 오늘날 경제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는 토지시장, 금융시장과 관련이 있는 부채 제도,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는 노예에 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융합되면서 생기는 시장,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1. 희년 토지제도와 토지 시장

1). 희년 토지소유권 3중구조

희년 경제 제도의 소유권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제외한 토지, 즉 우물과 성안의 건물 등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전체가 완전히 사유(私有)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인 토지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소유 하시는 신유(神有)이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인 토지를 영구사용권으로 배타적으로 사유화해서 소유하고 있고 또 유산으로 계속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유로 느끼게 된다. 희년 토지 제도의 3중 소유권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2 희년토지소유권 3중구조

첫째 개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고 국가는 개인의 토지처분을 금지한 것이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처분권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러한 토지의 사유는 당시 중근동 법으로 보면 획기적인 것이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왕이 임의로 원하는 시간에 토지개혁을 하는 체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유권을 미리 보장하기 위해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버넌스 체계는 없었다. 둘째 사용권 영역은 모든 가정에서 가장인 남자(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의 영구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셋째 수익권 영역은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으로 함께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용권의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여 직접 수익을 얻거나, 또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빌려 주고 수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여 토지의 수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개간하여 상승한 토지가치의 수익을 얻는 배타적 사유의 영역으로 설계되었다.

2). 유한기간 토지 사용권시장

“그 동안 성경의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하지 못한 사실은 성경의 희년 토지제도는 토지 문서를 거래하는 토지시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며 토지 시장은 토지 기반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장이라는 사실이다.”(김대영, 희년 경제제도의 개념과 적용 2, 2015)

희년 토지시장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희년 경제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석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전체 경제에서 특별한 위치, 특별히 분배서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그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오늘날의 자본시장과 같이 당시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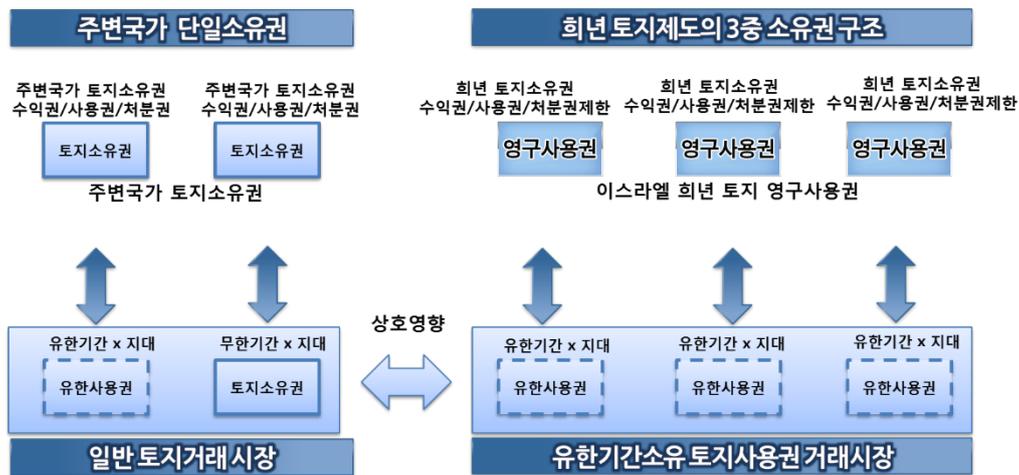


Figure 3 희년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 vs 주변국가 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

희년 토지는 수익권과 사용권은 사유이며 처분권은 사유와 공유가 융합된 3중 구조를 가진다. 희년토지제도의 영구사용권은 토지의 유한기간사용권 유통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희년토지 소유권 기반 희년 토지시장과 주변 토지시장의 비교와 상호관계를 개괄적으로 그림<Figure 3 희년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 vs 주변국가 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에서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토지시장 개념과는 차별화된 토지의 처분권이 제한된 영구사용권자가 다양한 필요에 의해 사용권의 일부나 전부를 최대한 50년에서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는 50년 주기 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빌려주고 돌려받는 유한기간 토지사용권(Limited time Land Use) 거래시장의 개념이 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구약의 희년법 당시에는 은이 화폐 역할을 했으며 또한 시장과 매매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에 매매를 위한 매매증서, 봉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토지 사용권이 공식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32:7~16) 토지 사용권을 사서 제 3자에게 파는 것이 금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파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토지의 원주인은 본인이나 친족이 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도로 살수 있었다.

① 처분권제한

우물과 성안의 건물 등의 토지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수단인 토지는 처분권을 제한하였다. 그래서 국가도 개인의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고 개인도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다. (레위기 25:23) 이렇게 처분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개인의 토지 영구사용권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희년 포함 50년을 최대 기간으로 가지고 거래기간이 주기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최대 기간까지 늘어나는 토지의 유한사용권 시장을 통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토지거래 시장을 가지는 것이다.

② 시대와 가격형성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레위기 25: 14-16)

먼저 지대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판다“는 레위기 소출(생산의 산출물)에 근거해서 지대를 지불 한다라는 의미이다. 전체 소출에서 사람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자본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제외한 것이 지대이다. 당시에 노동시장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 이자의 개념이 있었다. 은을 가지고 물물교환의 유통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자의 개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자와 노동력을 제외한 지대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지대 가격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자. 지대를 소출에 근거해서 정하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직전 해의 소출에 근거해서 지대를 정하는 경우, 둘째 평균적인 소출에 근거해서 지대를 정하는 경우, 셋째 소출에 근거해서 시장 가격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첫번째와 두 번째는 당시에 정부와 같은 기관에서 지대를 정해주는 경우라면 가능했을 것이지만 당시는 자율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인 소출에 근거하지만 시장 상황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설명하는 투자의 개념과 연결되어 토지의 가치를 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소출에 근거해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우선권이 주어졌을 것이다.

③ 거래기간, 파는 양, 전체 가격

희년 토지제도에서 거래기간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희년 후의 연수”라는 의미 때문에 토지를 희년이 시작된 해부터의 연수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 전체를 무조건 빌려주거나 빌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보다는 희년 50년 기간 안에서 남은 기간 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의 토지사용권을 팔기 원하는 연수를 뜻하는 것이 다음의 가지 이유 때문에 더 타당하다. 첫째는 성경의 안식년 법과 희년 법 규정은 당시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규범과 사용되고 있는 비 성문화된 중요한 규칙을 모두 법제화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준 이외에 한정된 기한의 주기를 가지고 운영되어 할 경제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한 토지나 몸값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채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 성경의 안식년

희년 규정 이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욥기 24:3; 신명기 24:10-13) 그리고 그림<Figure 3 희년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 vs 주변국가 토지소유권과 거래시장>에서 나타내었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토지거래 시장에서 유한기간 동안의 토지사용권을 팔거나 영원히 소유권을 처분하는 두 가지 방식의 토지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처분하지 못하고 유한기간 동안의 사용권 유통만 가능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뒤의 구절 “연수가 많으면” “연수가 적으면”의 해석은 희년 경제 구조에서 정해진 허용된 최대한 기간인 희년까지 남은 기간 안에서 팔기를 원하는 사람과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규정은 처분권을 대체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 이외의 일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 일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도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격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만약 정해진 최대한의 최대한 기간인 희년까지 남은 기간으로 정해지면 굳이 “연수가 많으면” “연수가 적으면”을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은 최대한의 기간 안에서 서로 협상하다가 사고파는 양측이 동의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앞 뒤의 연결구절에도 어울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도 좋고 더 합리적이다. 토지 시장을 생각하면 자신이 팔기를 원하는 기간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토지를 팔 수 있는 최대한 기간 팔았다 할지라도 자신이나 친척이 남은 기간을 소출에 근거해서 남은 기간의 값을 치르고 토지를 무를 수 있었다. 토지 무름을 기록한 것은 최대한 다 팔았어도 다시 자신이 원하면 사올 수 있었다고 하는 원래 토지 소유주의 우선 순위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의 개념을 보았을 때 처음 팔 때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파는 토지의 크기는 토지 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생각하면 자신의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전부나 혹은 토지의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팔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원하는 기간과 전체 토지 중에서 원하는 부분의 사용권 가치를 곱한 가격이 토지 유통가격이 되었을 것이다.

④ 자발적인 거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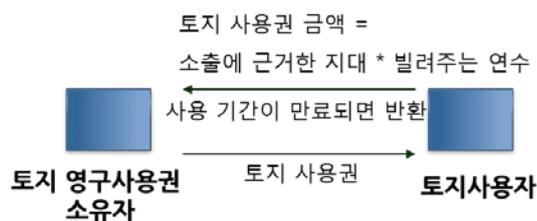


Figure 4 유한기간토지사용권 거래의 가격

희년 토지시장에서는 능력 많은 사람은 많은 토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을 지정해주거나 정해주는 체제도 없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토지를 빌려줄 사람, 빌리는 토지를 결정하는 자발적 선택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간과 다양한 규모로 토지를 빌려주기 때문에 매년 토지의 반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환 시간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동안 쉬는 초막절(신명기 16:3)이었다. 이것은 사사기 21장 안식월의 초막절(실로의 명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사사기 21장 22~23)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냐민 전쟁 이후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던 베냐민 기브아 지파가 토지가 가장 많은 지파가 되고 그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게 된다.

⑤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

토지 사용권을 거래하면 일반 적인 상황에서 토지가치의 버블효과가 생긴다. 버블은 토지의 가격이 실제가치보다 조금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거꾸로 경제가 불황일 때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자산 값을 헐 값으로 팔아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듯이 토지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더 작아지는 현상도 생겼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는 예측기간이 크면 더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그런데 토지의 사용권을 팔 수 있는 기한의 최대치는 최대한 50년에서 최소한 1년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시장적으로 결정되었다. 평균적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팔 수 있는 기한의 최대치가 늘어나면 거래 기간의 평균이 늘어나고 토지의 사용권을 팔 수 있는 기한의 최대치가 줄어들면 거래 기간의 평균이 줄어든다. 거래기간의 평균이 늘어나면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의 평균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희년이 시작되면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줄어들다가 내년이 희년이어서 토지의 사용권을 팔 수 있는 기한의 최대치가 1년이 되면 실질가치와 시장가치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2. 유한기간부채

희년 경제의 부채를 오늘날의 경제적 용어로 표현하면 유한기간의무 부채(Limited Time Liability Debt)이다. 오늘날의 금융기관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등을 발행하고 채권에 대한 유한 책임 부채⁶들이 있으나 담보 없이 부채에 대해서 유한 기간 동안 부채의 의무를 지는 부채는 나오지 않고 있다. 7년 마다 안식년에 부채가 탕감되었다. (레위기 25: 4-7) 그리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았다.(출애굽기 22:25; 레위기 25:35~37)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을 때 시장의 원리로 거래할 때 담보 가 설정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시장적인 개념과 함께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담보 대출보다 담보 대출을 선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현재부터 안식년까지의 기간이므로 안식년에 돈을 빌린다면 최대 7년, 내년이 안식년이면 최대 1년 기간에 갚아야 할 한정기간 동안 유효한 부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보가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토지나 몸 값을 담보를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한정기간의 토지 사용권이나 유한기간의 노동력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담보를 가져가 안식년이나 희년 때 돌려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토지나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동산에서 담보가 있는 경우는 동산으로 담보를 걸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몸값을 담보로 잡기보다는 토지를 유한 한정기한 동안 빌려주고 그것의 대가인 유한한정기한의 지대의 대가를 받는

⁶ 그것 중에 하나는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금융(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등이 있다. 유사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Full-Recourse)을 지우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상환 부담이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 (Non-Recourse)되거나 출자자 등의 일정범위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되는 부채를 말한다.

것이 더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희년 경제구조에서 담보 등을 기반으로 한 부채가 있었지만 이자 없이 7년기간후에는 부채의무가 소멸되는 부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돈이 급한 경우 사람이나 토지를 담보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빌려주며 돈을 것이 가장 시장적으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토지 사용권을 팔았던 룻기와 예레미아서의 예(예레미아 32:7~16) 에도 나타나 있다.

3. 유한기간 사람자산 시장

안식년의 노예해방(출 21:1-11;신 15:12-18)과 희년의 노예해방(레위기 25:39-55) 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 안식년이나 희년까지 남아있는 기간까지의 매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한 자신의 몸값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경제적인 분석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유한기간 몸값의 유통은 노동력도 오늘날의 토지나 다른 주식과 같이 자본화하여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경제구조적으로 미리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자신의 몸값의 일부를 팔아 일정기간 동안 노예가 될 수 있었는데 최대한의 기한이 토지와 같이 50년이나 7년에서 주기적으로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원하는 기간만큼 유통할 수 있는 유한기간 사람자산(Limited Time Human Asset)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토지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노동력을 일정기간 팔 수 있었는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것이고 못 갚게 되었을 때에는 안식년이나 희년 기간까지 노예 생활을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희년 경제구조는 유한 한정된 기간 동안 지력으로 소출을 내는 토지가 매년 지대의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자산(자본)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몸값(Limited Time Human Asset)을 이루어 안식년과 희년 구조 안에서 자산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도 노동력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들도 그들의 노동력에 따른 임금이나 경제적 소출을 기반으로 자산화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4. 생산수단의 융합소유권과 열린내부시장

희년 토지제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체제의 생산수단의 소유권에는 없었던 특수한 점이 있다. 희년 경제의 소유권 구조는 개인과 사회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도록 사적 소유권으로 구성되며, 분리된 사적 소유권 구조가 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특수한 융합구조를 취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의 분리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이루었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유를 100% 보장하면서도 처분권이 제한되면서 50년 주기 안에서 유한기간 토지사용권 시장을 가지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사전에 미리 정의된 주기적인 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생산수단의 사용권 시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대의 프랑스와 독일의 토지제도와 차별화된다.

특별히 차별화 되는 부분은 희년 토지제도의 융합소유권 즉 생산수단의 융합소유권은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영구사용권이 사유로 존재하는 100% 사유인 경제 영역이 있으며 그 사유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필요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영구 사용권을 유통하면서 형성되는 100% 사유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동체적으로 소유권이 융합된 특수한

유한기간 토지 사용권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토지 사용권 시장으로 인해 그림<Figure 5 경제체제의 종류와 > 과 같은 생산수단이 융합되는 경제층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제층은 토지의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부시장이 되지만 주기적인 열린 유통시장을 통해 사용권이 이스라엘 전체 내부와 외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시장을 열린 형태로 열어놓은 형태가 되어 열린 내부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세대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으로 응용될 수 있다.

			자원 배분방식			
			개인 자유		계획 경제	
			시장	시장 과 조합	시장과 국가차원 계획	국가 계획
소유권 방식	사유 재산 인정	생산수단 사유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조합주의	자본주의 시민주의	자본주의 계획경제
		생산수단 융합	(생산수단의 사유를 기반으로 융합) 희년 경제 -> 차세대 자본주의			
		생산수단 공유 (公有)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음	공산주의 계획 경제				

Figure 5 경제체제의 종류와 생산수단의 융합

5. 희년 경제의 장점

1). 투자기반 경제

사용권을 빌려주는 사람은 소출에 근거한 지대와 빌려주는 기간을 곱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투자 개념과 비슷하다. 그리고 빌려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토지를 돌려받게 되고 상승되거나 하락된 토지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경제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유권이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부채가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과 기존의 경제적 소유 차이 때문에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를 만들어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갚지 못하는 부채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자유와 부채문제를 희년 경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담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7년이 지나면 채무가 없어지는 부채만을 허용하여 가능한 부채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부채를 없앴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자 모두 빌리는 사람의 토지의 사용권의 전부나 일부를 돈이 필요한 기간만큼의 시장가로 거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희년 경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장점을 채택하면서도 분리된 생산수단의 소유권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투자 기반 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사유를 기반으로 영구사용권이 융합된 특수한 토지 소유권 제도와 50년 주기를 가진 토지 사용권 거래시장과 유한 한정기간의 부채 만이 허용된 금융구조로 설계되었다.

2). 차별화된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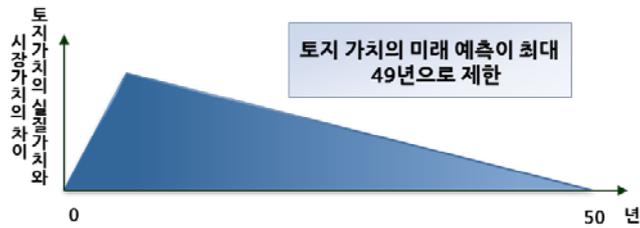


Figure 6 50년 주기내의 최대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산가치의 버블이 생겼다가 다시 자산가치가 실질가치보다 더 심하게 저평가되게 자산가치가 폭락되며 경제가 붕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의 희년 경제는 오늘날과 같이 자산이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는 거품경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유일하게 토지가 생산수단으로 자산가치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부분 버블과 또 버블의 붕괴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를 헐값으로 파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가 없는 노예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의 예는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7년 흉년 이후에 7년 흉년이었을 때 토지를 사서 애굽왕의 절대권력을 강화했던 성서의 예이다. 그러므로 희년 토지제도는 생산수단인 토지의 가치의 시장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치의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었다.

3). 주기적인 안식과 풍요롭고 민주화된 경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23:11).”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레위기 25:6)

토지의 휴경과 사람의 안식은 이전에 전술했던 유한기간 토지 사용권 시장과 유한기간 부채 시장, 유한기간 사람자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소유하고 서로의 토지에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는 관계가 될 때 주기적으로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또 그렇게 안식을 누리므로써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리게 된다.

토지의 휴경년에는 휴경 전해에 거두어 묵혀둔 것도 먹지만 토지에서 난 소출도 먹는다. 토지가 쉬는다고 하는 것은 토지에서 아무 소출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간은 하지 않지만 개간을 하지 않은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출이 나오고 그것을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출애굽기에서는 땅 주인 보다는 가난한자들에게 주고 레위기 25장 6절의 안식년 규정에는 토지를 쉬게 하면서 거두는 소출을 토지소유주와 남종, 여종, 품꾼과 함께 먹으라고 말하며, 그리고 레위기 25장 22절의 희년의 휴경에 관련된 법에는 토지 소유주가 먹으라고 말한다. 이렇게 휴경년 규정이 다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가족당 돌아가는 토지의 크기가 작아져 휴경년의 소출을 다른 이웃 보다도 먼저 자신의 가족들의 식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식년에 1년동안 쉬는 교수와 일부 종교지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1년을 쉬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심한 경제일수록 전체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본이 없고 또 노동을 쉬면 돌이킬 수 없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안식년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모두가 안식년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희년 경제구조에서 토지를 가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 생산수단의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인정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경제에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과 개인들을 융합하여 안전한 투자구조를 만들면서도 작은 기업과 개인들의 독자성을 100%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4). 공동체적인 기하학적인 평등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의 상태가 어려워지더라도 토지 사용권을 팔아 경제적 필요를 채우며 유통기한이 끝나거나 다시 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도로 살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토지를 가진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어 경제의 출발선의 기하학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소유 토지 가치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토지가치를 올려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토지를 빌려 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통기한이 끝나 되돌려 받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토지가치를 올린 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부익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도 빌린 토지가 토지의 원주인에게 빌려준 기한이 끝나 돌아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성과에 의해 올라간 토지가치가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인 능력에 따른 부익부와 공동체적인 부익부가 융합된 공동체적인 기하학적인 평등을 이루고 있다.

5). 자발적인 복지

복지가 필요하면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스스로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 자발적인 복지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롯과 나오미도 토지 사용권을 팔아 그 자금으로 이방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일반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 아내의 집안에 지참금을 지급하게 될 때, 토지 사용권의 일부를 1년 동안 팔고, 그 판돈으로 지참금을 지급하고 전쟁에도 면제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아내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토지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경 희년 경제구조의 세금은 십일조와 삼년의 십일조를 합하여 13%~23% 정도로 작았고 그 세금은 대부분 레위인 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활용하여 복지 비용을 마련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IV. SHC기반 융합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1. 희년 경제의 자본주의 적용

1). 희년 경제의 3가지 영역과 적용

희년 토지기반 경제는 그림<Figure 7 희년 토지제도의 내부시장과 조합형 주식회사의 내부시장>에서와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기축생산요소인 토지의 처분권 제한과 관련된 영구사용권을 가진 개별기업 영역이다. 둘째 부분은 유한기간 주기를 가진 토지사용권의 유통에 의해 형성되는 열린 내부 토지시장 영역이다. 이때 형성되는 토지거래는 일반적인 무한기간의 지대의 현재가치⁷인 토지가격 대신에 유한기간의 지대의 현재가치인 토지가격으로 거래된다. 셋째 부분은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형성되는 토지 시장의 영역이다.

오늘날의 자본시장에서 토지기반경제의 기축생산요소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수단인 기업의 지분이며 특히 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의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지분이다. 그러므로 토지기반 경제의 3가지 영역은 오늘날의 주식회사 주식지분과 자본시장에서 다음의 3가지 영역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영역은 기축생산요소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인 주식지분의 처분권 제한과 관련된 개별기업 영역이다. 이를 위해 경제 참여자들인 개인, 기업, 정부가 상법상 조합(파트너쉽)을 조합(파트너쉽) 조직을 결성하고 파트너쉽 조직에서 주식회사 조직을 설립하여 파트너쉽의 지분 처분과 파트너쉽에서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지분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개별기업들의 주식 지분을 유한기간의 평가에 의한 내부 자본시장을 가지려면 조합에서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소유하며 유한 기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조합지분이 필요하고 조합지분의 비율대로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분 내부에서 형성되는 열린 내부 자본시장과 열린 내부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내부시장이 생긴다. 셋째 영역은 주변국과 인접된 토지 시장의 형성은 조합형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때 외부의 투자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나아가서는 외부기업들과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을 기업화 한 것이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SHC(Servant Holding Compan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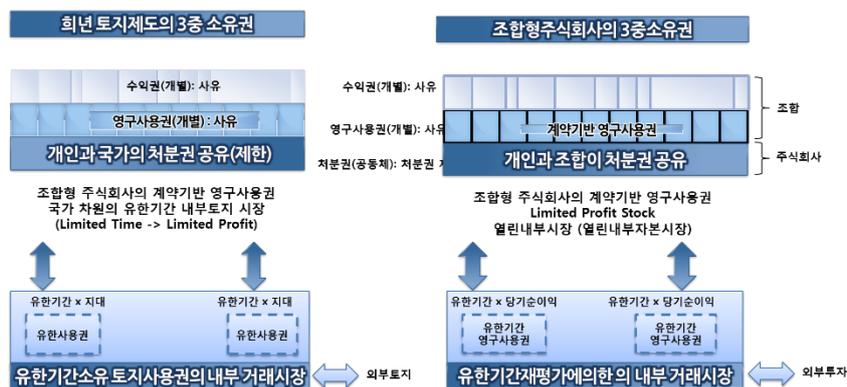


Figure 7 희년 토지제도의 내부시장과 조합형 주식회사의 내부시장

2). 기업단위 적용과 자본의 확장성 활용

⁷ 현재가치(Present Value): 미래에 얻게 될 자산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값

구약의 희년 경제는 국가차원의 경제구조이다. 이것을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적용할 때 첫째 개인과 기업들의 연합의 차원에 적용할 수 있고 둘째 국가차원의 민관협력 모델로 국가차원으로 적용하고 셋째 글로벌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3가지 차원 모두,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참여자들이 파트너십(조합)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기업을 만드는 조합형 주식회사의 기업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희년 토지기반 경제를 오늘날 자본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장성을 활용해야 한다. 유한 한정적인 토지와 달리 자본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현재가치를 가진 자본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경제참여자의 자본가치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출자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약정하는 방식⁸을 통해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2. SHC(Servant Holding Company) 구조와 종류

경제참여자인 영리 혹은 비영리 기업들, 개인들, 공공기관 등이 조합의 멤버가 되어 조합(Partnership)을 결성하고 조합이 주식회사를 설립 소유하며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조합과 주식회사의 장점이 융합되고 단점이 제거되어 융합된 특수한 조합형 주식회사(Partnership Stock Corporation)이다.

1). 조합과 주식회사의 융합

SHC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멤버들이 소유한 주식회사에서 멤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자신의 독자적인 소유권 외에 조합적으로 자신들의 미래의 경제적 소출을 현재화한 주식자본을 자신들의 기여한 만큼 지속 가능하게 소유하는 것이다. 둘째 열린 내부시장의 특징을 지닌다. 조합적으로 소유하는 내부시장이지만 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외부에 투자를 받으며 안전성과 또 성장을 위해 외부의 멤버들의 가입에 열려 있으며 기여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열려있다. . 셋째 투자는 조합이 소유하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받을 경우 자본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2가지로 나누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분배되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미래의 참여자들을 위해 남겨두고 지속적으로 실현된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 받은 자본을 분배한다.

이러한 특징은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조합과 주식회사를 기업 지배구조적으로 융합하여 주식회사의 장점을 채택하고 단점을 제거하고 조합의 장점을 채택하고 단점을 제거하여 설계된 것이며 희년 토지제도의 소유권의 3중구조와 소출(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희년 토지시장 즉 열린 내부시장의 개념을 주식회사의 자본시장과 융합하여 구현한 것이다. 현재의 자본시장에 100% 호환되어 조합형 주식회사 전체로 투자를 받으며 조합 멤버들 내부에 기존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극복한 정보대칭의 열린 내부자본시장을 형성하여 자본시장에 투자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소출이 자본화 되어 개별적으로 기여한대로 지속 가능하게 경제적 소출을 내는 것에 근거해서 자본을 소유하고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⁸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은 Closed SHC; 장기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약정하는 방식은 Open SHC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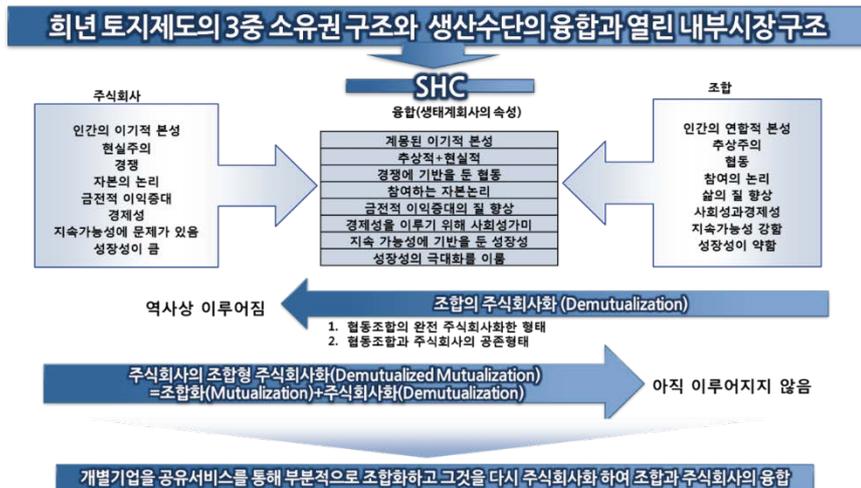


Figure 8 조합과 주식회사의 장점 융합 단점 배제

2). 열린 공유서비스와 열린 내부자본시장

공유서비스는 기업이 내부 효율화를 위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있거나, 같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하에 있거나, 글로벌 기업의 로컬기업에 속하는 여러 회사들의 사업부서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효율과 자본화를 통해 성장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회사나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회사들의 공유프로세스를 모아 회사 조직 밖에 공유서비스 회사(Shared Service Company)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다시 자본화한다. 이에 비해 열린 공유서비스는 참여하는 조직, 기업 개인들이 첫째 그들의 프로세스(서비스)를 공유하거나 둘째 자본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대칭 상황으로 공유하는 SHC를 만들어 시너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유서비스와 다른 점은 개별기업들이 열린 공유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 공유서비스의 이익과 증권화된 자본 이익을 기여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열린 공유서비스의 서비스 공유는 기존의 공유서비스와 같이 일감을 공유하며 SHC를 만드는 서비스이며 열린 SHC와 닫힌 SHC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열린 공유서비스의 자본 공유는 닫힌 SHC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지분을 조합에 출자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개별기업들의 지분이 공유되고 조합형주식회사에서 융합되어 그것이 주기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되어 내부 지분을 소유한다. 이러한 SHC내부의 내부자본시장은 조합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정보대칭의 자본시장이며 일반 자본시장과 융합되어 외부투자자 및 투자를 받기 원하는 기업들에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내부자본시장(OICM Open Internal Capital Market) (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2014)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열린 내부자본시장은 일반 자본시장의 장점과 내부자본시장의 장점이 융합되고 IT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어 투자 불확실성과 위험이 감소된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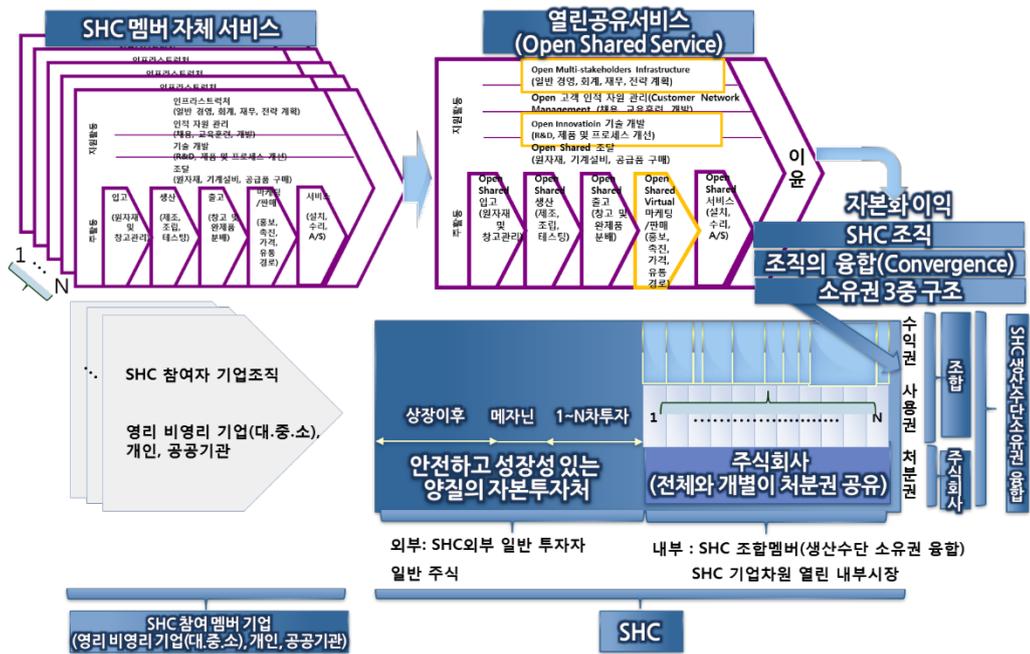


Figure 9 열린내부자본시장

3). SHC의 종류

Open(열린) SHC는 프로세스(서비스 혹은 일감) 공유의 열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파트너십)형 주식회사이며 그 멤버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는 가치는 Open SHC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의해 Open SHC의 주식회사 시가총액에서 개별 기업이 기여한 부분에 따라 자신의 시가총액을 가지며 그것을 통해 투자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열린공유서비스를 통해 비용절감과 매출증대의 혜택을 가질 수 있다.

한편 Closed(닫힌) SHC는 개별 멤버 기업들의 주식을 합의된 기업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Closed SHC로 합병하되 주식회사의 주식을 파트너십 조합이 소유하고 파트너십 조합원들간에는 개별 멤버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비율대로 지분을 분할한다. 또한 주기적인 평가에 의해 지분이 실적과 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개별기업의 대표는 Closed SHC에서 각자대표가 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위험이 Closed SHC로 전파되지 않고 지분의 가치만큼 Closed SHC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Closed SHC 기업구조와 멤버기업이 소유하게 되는 가치는 연합기업을 통해 자본시장에 상장하거나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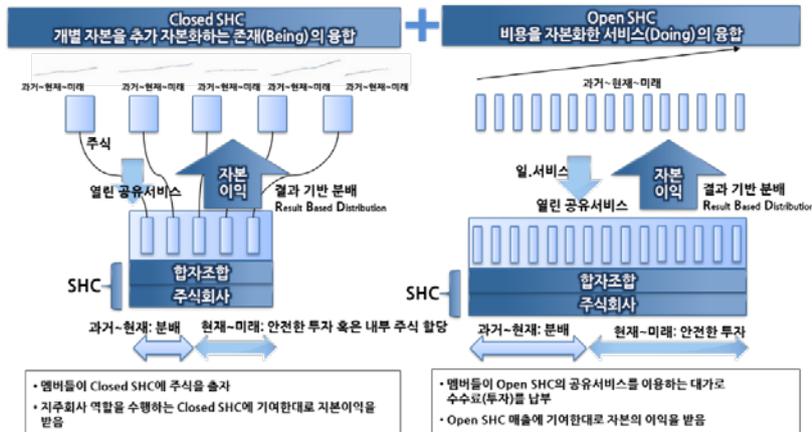


Figure 10 Closed SH와 Open SHC

4). 자본시장 투자 생태계 문제의 해결

자본투자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투자 대상이 투자하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문제이며, 투자대상이 투자 받지 못하는 문제를 투자하기 위험한 기존의 99%의 기업들을 SHC (Open SHC, Closed SHC)를 통해 해결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열린공유서비스를 사용하여 투자하기에 안전한 융합기업(Open SHC, Closed SHC)을 창조하고 그 기업들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경제 참여자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의 관점에서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며 두 번째는 초기 벤처 투자 대상의 기업으로 투자자들이 벤처 창업가 이익에 동참할 수 있는 성장성 있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다. 세번째는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매출 1000억 이상이 되어 소유회사들이 출자해서 지주회사 등의 자본을 창출하고 공유서비스 회사등의 설립을 통해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자본화할 수 있는 내부자본시장과 내부시장을 가지고 회사들이다. 이 세가지 그룹 중에 벤처 투자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곳은 두 번째 그룹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그룹은 자체적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자본투자는 자체조달을 하거나 부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 경제 참여자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전체 경제인구의 0.3% 정도 해당되고 대다수의 개인들과 기업들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개인과 기업이 Closed SHC와 Open SHC 구조를 가지게 되면 열린내부시장과 열린내부자본시장이 형성되어 개별기업과 개인의 독자성도 보장되면서 자본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세 번째 그룹과 같은 내부시장을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Open SHC와 Closed SHC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 그룹도 이미 독자적으로 내부시장과 내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1번 그룹과 2번그룹과 함께 Open SHC구조와 Closed SHC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대.중.소.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림<Figure 11 현재의 투자적합도 분류와 SHC적용>에서와 같이 민간과 정부의 공공서비스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민민협력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도 Closed SHC와 Open SHC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노동력도 SHC 구조의 인적자본융합기업(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2014)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창출하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개인들은 Closed SHC와 Open SHC구조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성 없이 수직적인 기업집단에 소속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Open SHC를 통해서 자신이 창출하는 경제적 소출을 자본화하며 자신의 자본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Open SHC를 통해서는 모두가 투자대상이 되며 Closed SHC를 통해서는 독자성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열린내부시장을 형성하며 힘을 합쳐 자본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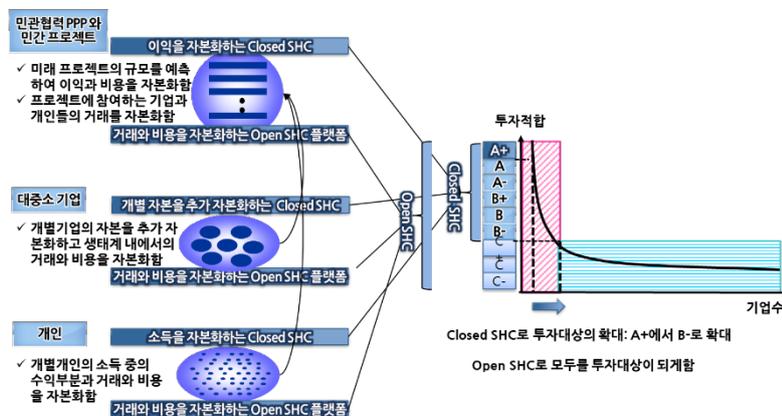


Figure 11 현재의 투자적합도 분류와 SHC적용

3. SHC기반 융합경제와 경제민주화

1). 기존경제

기존 경제는 수평적으로 섹터끼리 융합되며 다양한 기업의 종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1섹터와 2섹터가 융합되는 민관협력의 경우는 민간과 정부간의 이익의 분배 문제가 제로섬 경제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3섹터와 2섹터가 융합되는 사회적 경에 영역에서는 투자와 관련되어 기부에서부터, 자선투자, 임팩트투자, 지속가능투자, 사회적책임투자등 투자가 세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투자는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2). SHC기반 융합경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경제는 열린내부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층을 만들며 기존의 모든 사업과 경제 층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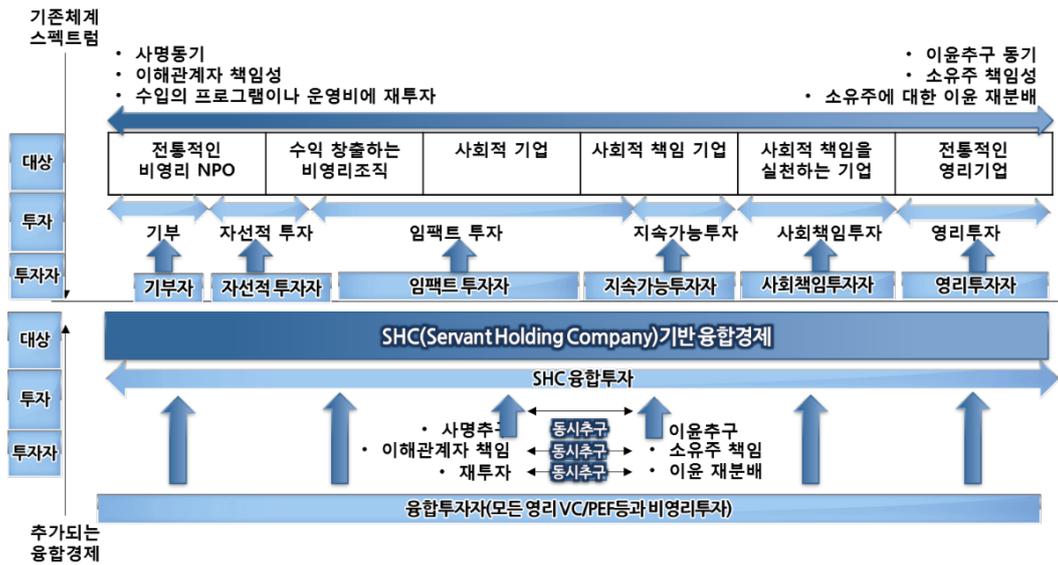


Figure 12 기존경제의 투자와 융합경제의 투자-3섹터와 2섹터간의 융합

기존의 방식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과 같이 수평적으로 섹터간 융합에 의해서 기존의 경제영역에 새로운 조직들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SHC기반 융합경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영역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섹터간 수평적 융합만으로는 안전하고 성장성 있는 투자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SHC를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섹터간 수평적 융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과 기존 조직 모두 열린내부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투자를 받게 되어 혁신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3섹터와 2섹터간의 조직들의 수평적인 융합과 그 수평적인 융합들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투자와 투자대상을 지원하는 SHC기반 융합경제의 수직적인 지원 융합관계를 그림<Figure 12 기존경제의 투자와 융합경제의 투자-3섹터와 2섹터간의 융합>에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섹터와 2섹터간의 기존의 수평적 융합과 SHC기반 융합경제의 수직적인 지원 융합, 또한 1섹터와 3섹터간의 수평적 융합과 SHC기반 융합경제의 수직적인 지원 융합과의 관계를 그림<Figure 13 1섹터와 2섹터간 융합과 1섹터와 3섹터간 융합>에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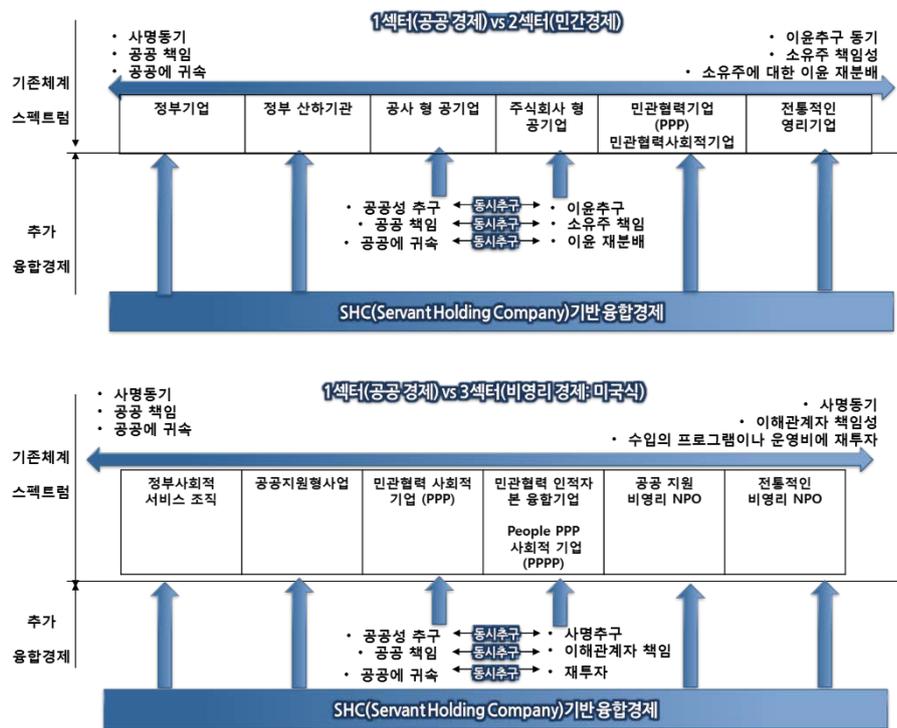


Figure 13 1섹터와 2섹터간 융합과 1섹터와 3섹터간 융합

3).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소수만이 정치에 참여 수 있었던 정치적 권리를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정치 권리의 확대 개념인 것처럼, 경제 민주화도 경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권리와 권한의 확대 개념이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민주화는 제도적 경제구조에서 기득권의 권한을 빼앗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SHC기반 융합경제로, 소수만이 자본시장에서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 확대의 개념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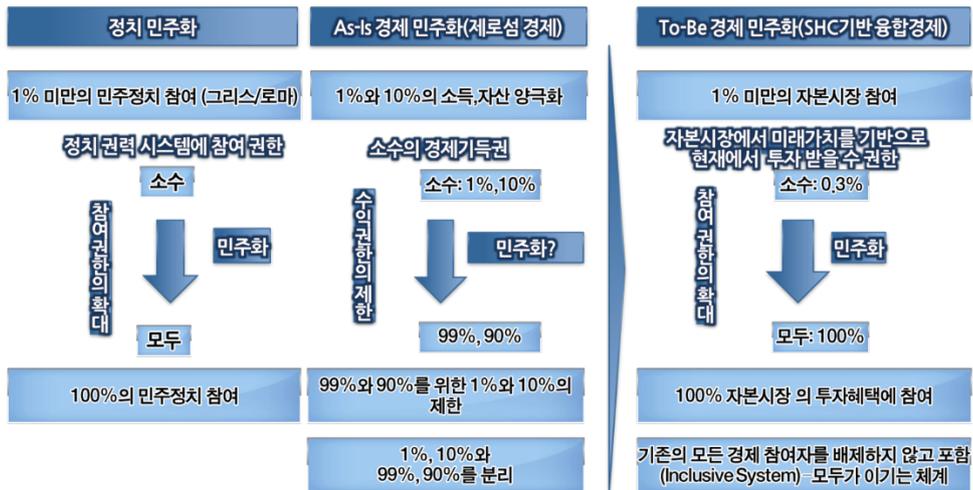


Figure 14 자본시장민주화와 경제민주화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희년경제의 토지시장과, 부채제도, 사람의 몸값 제도를 분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적 의미로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 경제를 이루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희년 경제 구조를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 전체 차원의 토지제도와 토지시장의 핵심적인 개념을 SHC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SHC 내부에 정보대칭의 열린내부자본시장을 형성하도록 하여, 기존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과 개인들이 SHC를 통해 자신들이 기여한 대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소유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리고 이미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부와 비영리 민간기관등도 SHC 구조 안에서 함께 추가적인 자본을 소유하며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SHC기반 융합경제구조가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와 논문을 시작으로 구약 희년 경제에 대한 경제구조적인 연구가 좀더 진행되고, SHC기반 융합경제를 통해 자본시장 민주화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더 많은 관련 연구와 실물경제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Chaddad, R., & Cook, L. (2002). *An Ownership Rights Typology of Cooperative Models*. University of Missouri.
- Fried, C. (1983). Liberalism, Community, and the Objectivity of Values," (p. 960). *Harvard Law Review*, vol96, no.4(February 1983).
- Hock, D. (2000). "Birth of the Chaordic Age" . Berrett-Koehler Publishers.
- Iansiti, M., & Levien, R. (2004). *The Keystone Advantage*. Perseus Distribution Services.
- Korten, D. (1997년).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때*. 세종서적.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 Tomkinson, R. (2007). *Shared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Ashgate.
- 甲斐道太郎등저, & 강금실역. (1984).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 김대영. (2012).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 7.0." 퍼플.
- 김대영. (2015년 8월 28일). 희년 경제제도의 개념과 적용 2. "CMR(Christian Management Review) 14호" .
- 김대영, 심상달, & 장원석. (2014).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금융연구원.
- 김병하. (2003). 성경적 희년 규제 요소와 희년 주기. "개혁 신학" , 39-50.
- 김병하. (2005). "희년사상의 영성화." 기독교서회.
- 김정오. (2000).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연구. 한국법철학회.
- 박정순. (1999).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그 한계. "철학 61권 0호" , 267-292.
- 이병기. (2004년 12월). "기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우관. (1999). "그룹기업의 투자 및 고용행태와 내부자본시장." 한성대학교.
- 이종근. (2008년 6월 30일). 수메르 우르-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정의 고찰. "구약논단 제 14권 2호(통권 28집)" .
- 정영조. (2009). 양면시장이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 전략, 학위논문(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 혹디. (2002년). "카오디." 청년정신.
- 홍훈. (2010). "경제학의역사." (주)박영사.